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News Letter

모두의 문화관





‘서서당(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당)’ 행사, 성황리에 마쳐

올 하반기 우리 문화관의 키워드는 ‘장애’입니다. 2026년 6월부터 서울시의 지원으로 장애와 비장애라는 구분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서서서(서울, 서로가 서로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지음받았다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시를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월 19일(토)에는 체험부스 행사, 서서당(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은평구의 장애 관련 복지기관 3곳을 비롯한 총 7개의 기관이 체험부스와 플리마켓을 운영하였고, 3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0시 30분과 1시에는 가족교육 프로그램 ‘만지는 마음’이 두 번 진행되어 참여 가족들이 피부를 통해 사랑을 확인하고 가족의 손모양을 본뜬 조형물을 만들어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3시에는 400권의 동화를 출간하신 고정욱 작가님의 토크콘서트도 있었습니다. 고정욱 작가님은 장애인으로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연을 마친 후 한 참석자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도울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물었는데요. 작가님은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줄지 먼저 물어봐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층 출입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문화관이 기증받았던 도서 중 여러 권이 겹친 책들을 나누는 코너도 운영하였습니다. 많은 참여자들이 기독교와 관련된 다양한 도서들을 자유롭게 가져가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문화관의 첫 번째 체험행사인 서서당에 참여해 주신 많은 기관과 시민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자료기증 캠페인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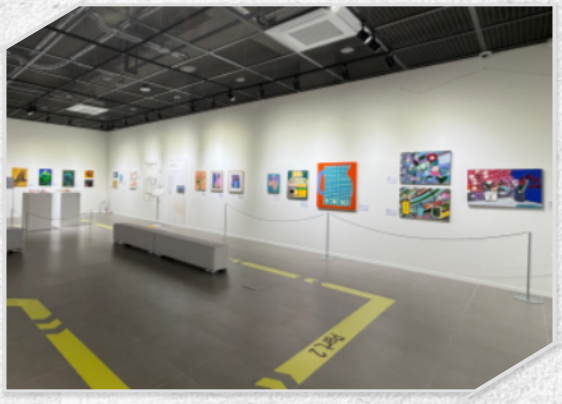
우리 문화관은 기독교 문화유산 기증을 상시 받고 있는데요. 9월부터는 기증 캠페인 '함께'가 진행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 오래된 물건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게 무슨 유물이 되겠어?'라는 생각에 그냥 썩혀 두시는데요. 신앙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기독교의 소중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버리지 마시고, 그냥 두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볼 수 있도록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은 기독교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이어나가는 첫걸음이 되는 아주 소중한 행동입니다. 우리 문화관에 기증 의사를 밝혀주시면 너무 상해있지는 않은지, 문화관과 성격이 맞는 물건인지, 비슷한 자료가 너무 많이 수집되어 있는지 등을 심의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캠페인은 11월 2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기증자에게는 다양한 예우가 주어집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프랑스 교회의 유물 기증



우리 문화관은 지난 8월 30일 프랑스 릴에서 프랑스연합개신교회(L'Église Protestante Unie de France)로부터 1678년에 출판된 프랑스어 성경과 프랑스 성직자의 예복, 위그노 십자가 등을 기증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기독교 박물관이 생기는 것을 프랑스 교회가 함께 기뻐하며 두 나라 교회 사이의 우정을 더 깊게 나누자는 뜻으로 소중한 문화유산을 기증해 주신 것인데요. 프랑스연합개신교회 전 총회장 엠마뉘엘 세이볼트 목사님은 "이를 계기로 두 나라의 선교적 교류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고, 문화관 이사 손달익 목사님은 "이 성경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프랑스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지켜온 신앙과 고난, 인내의 역사가 스며 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성경을 지켜오신 마음과 정성을 이어받아 다음 세대까지 안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번에 기증받은 성경은 10월 하순부터 전시될 예정입니다.

서서서, 3회차 전시 <위하는 방법> 개막



10월 6일부터 연말까지 배리어프리 특별전시 '서로가 서로를'의 3회차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차의 주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방법'으로 유수지, 유리, 김경숙, 신수항, 신현채 다섯 분의 작가가 참여합니다. 이번 회차의 위하기는 '서로가 서로를'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시로 1회차의 알아차리기, 2회차의 바라보기에 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위하는 삶과 실천이란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관람 부탁드립니다.

열기가 뜨거웠던 학술세미나 <장애와 예술>



우리 문화관과 한국장애인신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학술세미나 '장애와 예술'이 9월 10일(목)에 개최되었습니다.
다섯 분(최대열, 김흥현, 장요한, 김승곤, 이신화)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장애와 예술'과 관련한 다양한 신학적 고민과 연구성과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문화관의 다목적실을 가득 채운 청중들도 연구와 목회에서 생긴 저마다의 고민을 꺼내놓으며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나간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주요일정

10월 6일(화)	서서서 3회차 미술전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방법> 개막
10월 27~30일	1차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대화형 도슨트 해설(서서서, 기획전시실 1)
11월 24~27일	2차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별 대화형 도슨트 해설(서서서, 기획전시실 1)
11월 29일(일)	한국기독교역사문화관 자료 기증 캠페인 '함께' 종료
12월 11일(금)	기획전시 <아주 보통의 주말>, <To. 조선 From. 한국> 디지털 도록 발간

문화관 유물들 ① 프랑스어 성경(1678년)



■ 어떤 유물인가요?
- 1678년 제네바에서 출판된 프랑스어 성경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의 사상을 따르던 프랑스의 위그노가 대를 이어 사용하던 것입니다.

■ 언제 어디서 수집되었나요?
- 2026년 8월 30일에 프랑스 릴에서 수집하였습니다.

■ 어떻게 수집하게 되었나요?
- 프랑스연합개신교회(이하 연합교회)가 우리 문화관에 기증하였습니다. 연합교회는 위그노의 후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3년에 프랑스 개혁교회와 프랑스 복음주의 루터교회가 하나로 합치면서 생긴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입니다.
원 소장자는 피에르 몽쟁(Pierre Mongin)으로 연합교회가 우리 문화관에 기증할 문화유산을 모집하는 것을 보고 대대로 내려오던 성경을 연합교회에 쾌척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받은 연합교회가 문화유산의 해외반출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후 문화관에 기증해 주었습니다.

■ 유물에 대해서 좀 더 소개해 주세요.
- 이 성서는 위그노 신자였던 뒤몽(les Dumont de Crest) 가문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뒤몽 가문은 안투안(Antoyne)이 위그노 전쟁에 장교로 참여했다가 1569년 10월 3일 몽콩투르 전투에서 전사할 정도로 열렬한 위그노 신자였습니다. 종교적 관용과 자유를 인정한 낭트칙령(1598년 발표)이 1685년 철회되자 뒤몽 가문은 프랑스를 떠나 제네바로 망명했습니다. 아마 이 시기에 이 성경을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뒤몽 가문은 1727년 크레 인근의 라 레파라(La Répara) 영지를 구입하고 프랑스로 귀환했지만 이후로도 종교적 탄압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몰래 장남에게 물려주며 숨겨왔습니다. 원 소장자인 피에르 몽쟁 교수님도 뒤몽 가문의 후손이십니다. 몽쟁 교수님의 아버지가 뒤몽 가문의 사위입니다. 그런데 몽쟁 교수님 본인은 가톨릭 신자인데 가톨릭과 개신교의 화해를 위해 기증하셨다네요.
이 성경은 표지 등 몇 페이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박해 당시 개신교인을 색출하기 위해 그 증거로 성경을 찾았는데요. 문맹인 군사들이 '성경'(Bible)이란 단어만 익히고 집안을 수색했기 때문에 앞뒤 표지 등의 성경이라고 적혀 있을 법한 부분을 찢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판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연합교회가 제네바 국제종교개혁박물관에 문의하여 제네바 도서관에 동일 판본의 성경이 있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1588년 발간된 테오도르 베자(Théodore de Bèze) 불어 성경의 개정본입니다.

신규 후원자 (2026. 08. 12 ~ 현재, 가나다순)

김성희, (주)프랜차이즈이음

신규 기증자 (2026. 08. 12 ~ 현재, 가나다순)

유수남, 전계숙, 프랑스연합개신교회, Olivia Gerhard

관람안내

관람 시간
매주 화요일~토요일 10:00~17:00 (입장마감: 16시 30분)
매주 일요일 13:30~17:30 (입장마감: 17시)

휴관일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명절 연휴,
기관이 정한 휴관일(사전 공지)

전시 관람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역사를 보고 돌아가는 사람에서,
역사를 함께 지켜가는 사람으로.

유물을 바라보는 사람에서,
다음 세대에 전할 이야기를 함께 만드는 사람으로.

무료로 문을 열어놓았지만,
그 문을 계속 열어둘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린 문 뒤에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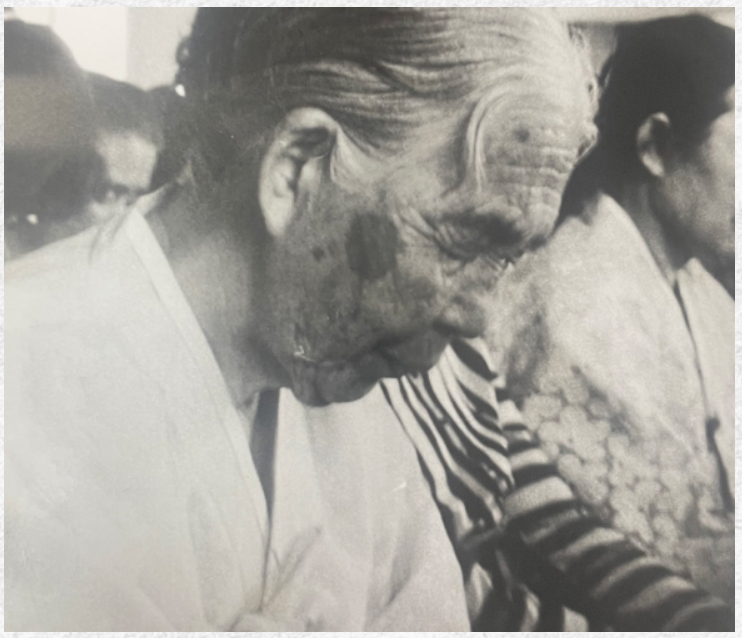
후원 안내

후원금은 전시·교육·연구 등 한국기독교의 역사·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에 활용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좀 더 쉽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후원 후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사무국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증 안내

가지고 계신 문화유산을 미래로 보내드립니다.
기독교 자료를 비롯하여 한국의 근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를 기증받습니다.
기증해주신 자료는 그 소중한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영구 보존하며,
다양한 연구와 전시·교육 자료로 활용됩니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4-792837

문의 및 연락처 : 02) 356-8414~6